

태평양

海路安全에 관한 韓國의 視角



閔寬植
(科 總 會 長)

本 演說文은 지난 9 월 23~25일까지 3 일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太平洋海路安全問題에 관한 會議」에서 閔寬植회장이 「太平洋海路安全에 관한 韓國의 視角」이란 연제로 행한 연설 내용의 요지이다.....〈편집자 註〉

議長, 來賓 紳士 淑女여러분!

本人은 오늘 이 자리에서 美国, 日本, 中華民國, 그리고 大韓民國의 著名한 관계자들을 모시고 연설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성공적인 모임을 조직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신 치커링氏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地球 “최후의 未開拓 영역”으로서 혹은 “人類共同의 遺産”으로서 地球表面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는 大洋은 個別國家와 多國籍企業들에 의해서 富와 權力과 權威의 추구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前美國 國務長官인 헨리 키신저박사의 말을 빌면 19세기의 未開拓 땅들보다 大洋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훨씬 큰 것이 사실이나, 반면에 갈등의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합니다.

세계의 주요 海路의 교차로의 하나인 太平洋도 예외는 아닐것입니다. 亜細亞의 짧은 지역을 돌 때에도 地域內의 相衝하는 이해에서 비롯되는 地域的 國際的 긴장을 感知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海洋을 自由롭고 開放的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國際體制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러한 긴장의 강도는 다음의 상호관련된 두개의 요인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첫째, 주요 強大國들의 행위이고, 둘째, 東南北 亞細亞國家들이 海洋使用에 대한 건설적인 시책을 제정하고 수행하여 분쟁을

平和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前提下에서 나는 현재 進行중인 海路安全問題와 그것이 西太平洋에 관계되는 나라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海路나 海路安全은 超強大國들의 海軍力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美國海軍이 第2次大戰後 적어도 20년동안 太平洋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를 누려왔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美國의 이러한 優位는 최근 몇년동안 蘇聯의 海軍力の 증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된바에 의하면 蘇聯은 潛水艦과 戰艦의 構築에서 각각 4 : 1 과 2 : 1로 美國에 앞서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美國은 지난 15년동안 자신의 艦隊規模를 감축시켜 왔습니다. 현재 蘇聯이 誘導核彈頭 미사일을 적재하고 있는 155대의 潛水艦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美國은 核武器를 적재한 68대의 潛水艦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西太平洋 地域에서 蘇海軍力の 抬頭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잘 알려진 바 대로 蘇聯은 極東駐屯 海軍力을 지난 15년간 두배로 증강시켜 왔습니다. 현재 蘇聯은 極東地域에 총 152만톤에 달하는 785대의 戰艦을 배치하고 있는 반면에 美國의 7艦隊는 단지 총 60만톤에 불과한 55대의 戰艦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海軍力の 균형에 관한 이와같은 최근의 변동으로 인하여 蘇聯은 太平洋과 印度洋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예를들면 東南亞細亞에서 蘇聯은 매년 베트남에 9억弗의 원조를 제공하는 代價로 「다낭」과 「캄란」의 두 베트남港口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東北亞에서 北韓의 羅律港을 蘇聯의 商業基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약 200대의 蘇聯戰艦이 매년 大韓海峽를 통과하면서 極東地域에서의 蘇聯海軍의 점증하는 활동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蘇聯 膨脹主義의 다음 목표가 東北, 東南아시아 國家들의 經濟的 生存을 위해서 필수적인 「말라카」海峽의 지배에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만약 蘇聯이 「말라카」海峽을 확보하게 된다면 아프리카, 유럽, 中東地域과 연결되는 東北亞의 海路使用國들을 위협 함으로써 亞細亞 國家의 經濟, 政治的 安定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 주리라는 것을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中東에서 東아시아에 이르는 原油輸送에 대한 蘇聯의 압력이 있게 된다면 日本, 韓國, 中華民國의 경제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海路安全에 대한 위협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게 될 것인데, 특히 이들 국가의 주로 선진국에 대한 朱錫, 고무, 야자기름 등 원료와 다른 상품들의 수출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西太平洋 海路가 갖는 점증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레이건政府는 1980년 4월의 소위 “스윙戰略”을 수정함으로써 地球海洋利用에 영향을 미치는 防衛戰略에 대한 時宜適切한 변화를 감행하였는데, 同 戰略에 의하면 7艦隊와 같이 西太平洋地域에 배치된 美海軍力은 全面戰이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大西洋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5戰略”의 레이건 닥트린으로 불리우는 새로운 방위전략을 페르시아灣에서 美國西岸에 이르는 방위지역을 하나의 單位防衛地域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스윙戰略”과는 달리 이 새戰略을 原油輸送路의 保護에 보다 높은 優先順位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2.5戰略”의 핵심은 3개의 重要地域과 관련하여 防衛優先地域의 相對的 重要性를 확립시켰다는 것인데 유럽과 西太平洋地域, 그리고 中東地域에 각각 1의 중요성을 부여하였고, 라틴아메리카와 餘他地域에 ½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

이제 極東海路安全問題에 관심을 돌려 보겠습니다. 비록 美国이 西太平洋의 방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할지라도 東北아시아는 아직도 超強大国間의 복잡한 세력균형으로 인하여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역의 현상은 한편으로 美·日安保條約과 韓·美防衛條約 그리고 美·中 軍事協力 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발전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비록 蘇聯과 中国의 두 社会主义國家의 同盟이 사실상 廢棄되어졌다 할지라도 이 두 國家의 北韓과의 강한 軍事的 紐帶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南·北韓과 같이 中華民國과 中共은 상호 敵對的 態度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속적이고도 심각한 긴장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불안정한 세력균형에 혼란이 온다면 이 지역의 안정에 실질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입니다. 특히 韓半島는 분단된 指導体制下에서 매우 예측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北韓의 南韓侵攻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은 北韓이 蘇聯主導의 膨脹主義에 共同步調를 취할 가능성 때문에 점점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北韓만의 潛水艦 保有數도 南韓과 비교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南韓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는 경우에 美国 7 艦隊가 신속한 抑制行動이나 즉각적인 報復을 감행하는데는 몇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선 美国의 生存과 国内的 狀況이라는 이유때문에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中東原油生産 國家에 대한 防衛力 補強때문에 東南아시아가 武力攻擊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美国은 蘇聯에 비해서 韓半島에 접근하는데 地理的인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美国이 모든 上陸艇과 軍事, 民間航空을 동원하여 1 個師團을 韓國에 투입하는데 약 3 週일이 걸릴 것이라 합니다. 非常時에 만약 美海軍이 蘇聯 太平洋艦隊의 基地와 大韓海峽, 津輕海峽, 宗谷海峽등, 太平洋으로 통하는 3 개의 가능한 出口를 봉쇄하는데 실패한다면 日本과 中華民國도 國家安保에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局地戰의 경우라할지라도 海路의 保護는 자연히 단지 일부의 海洋에만 한정되게 되지 않습니다. 비록 西太平洋의 海路安全이 궁극적으로 美国의 支持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자나라는 자체의 防衛努力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海路의 平和와 安全을 동시에 유지하려 한다면, 이것은 오직 集團安保에 대한 相互協力 追求와 이 지역의 軍事費 支出에 대한 공동부담을 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동의 노력과 관련된 최근의 한가지 중요한 발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第3次 U. N. 海洋法會議에서 海洋과 그 資原의 利用에 관한 모든 점을 취급한 廣範圍한 海洋法規인 “海洋法規約”이 채택되었습니다. 領海와 國際海峽에서 外國船舶의 通行에 관해 注意깊게 표현된 條項들은 바로 우리가 사실상 오래전부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기울어왔어야 했던 世界的 關心의 問題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本人은 이 會議가 “陸地가 갈라놓은 것을 바다가 統合한다”는 命題를 실현하기 위한 進一步의 계기가 될 것을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입니다.